

醫藥品產業과 漢藥

韓 龜 東

서울대학교 생약연구소

Pharmaceutical Industry and Oriental Drugs

Koo Dong HAN

Natural Products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한국에서는 아직도 한약이 의료 및 의약품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국제한약시장과의交易도 적지 않은現狀이다.

이제 1971년도 의약품의 총수출실적을 보면 한약제 73 품목, 3,003,158 불(전년도 2,674,333 불)이고 인삼제 6 품목 842,298 불, 원료의 약품 3 품목 653,885 불, 完製醫藥品 13 품목 503,777 불 합계 95 품목에 총 5,003,117 불이고 1970년도는 4,523,802 불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년도에 있어서의 총수입실적은 원료의 약품 729 품목에 17,086,189 불(전년도 14,691,119 불), 완제의 약품 398 품목 2,628,648 불, 한약제 107 품목 1,491,662 불(전년도 1,533,811 불), 합계 1,229 품목에 총 21,206,499 불이고 전년도는 19,260,372 불로 집계되고 있다.

앞서의 총계에서 볼 때 1971년도에 있어서 의약품 총 수출액 중 한약제(인삼제제제외)의 수출액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의약품수출에 있어서 한약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가히 알 수 있으며 반면에 의약품 수입에 막대한 外貨를 소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149여만불에 달하는 한약제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을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國內消費를 보더라도 국민의 다수가 아직도 한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의약품산업에 있어서 한약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참으로 크다고 보겠다.

도리켜보건데 현대의 약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엽이고 보면 우리민족은 유구한 세월을 두고 한약을 專用하여 왔으며 특히 高麗朝초기까지는 主로 唐材(중국산약제)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고려로 중기로부터는 점차로 종래의 唐材의존으로부터 벼서나 국산약재를 장려하였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정부시책을 문헌상 차지 볼 수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즉 국산약재를 唐材에 대하여 鄉藥이라 부르고 이 鄉藥의 自立을 위하여

- 1) 鄉藥方書의 刊行
 - 2) 鄉藥의 鑑別을 위한 전문가의 國외파견
 - 3) 鄉藥의 分布 조사
 - 4) 鄉藥材의 種養勸獎
 - 5) 鄉藥의 栽培 및 採取 등에 관한 指導
 - 6) 鄉藥과 唐材와의 藥效對照試驗 등의 시책을 썼다.
- 이런 정부시책에 의하여 鄉藥이 많이 發掘되어 唐材를 代置하였고 국산약의 큰발전을 보았으며 멀리는 일본에 까지 한약을 보급시켜 크게 국위를 선양하였다. 그러나 燕山朝에 이르러 또 다시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며 더욱이 李朝 말엽에 서양의 약품이 급속히 들어옴에 따라 한약은 이에 압도 되었고 또한 洋藥에 대응할 만한 깊은 연구와 개선의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한약은 날로 衰退一路를 거렸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 한약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그의 活路를 타개코자 하는 기운이 점차 커져서 전술한 바와 같이 醫藥品產業面에 있어서도 한약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약제를 살펴 볼 때 아직도 구태의연한 舊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한약의 혁대화 및 생산성 증대가 시급히 요청되며 그리기 위하여는 한약에 대하여 다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의학에 대하여서는 전문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의 真價를 논평할 수는 없으나 自然哲學的 醫學觀과 장구한 경험으로부터 昇華된 實證的醫學觀에 입각한 한방의 학원리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 한약은 그 효능에 있어서 무시못할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여러 學者들이 인정하는 바이지만 다만 한약의 치료적 효과측정이

計量化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 객관성이 분명치 못하여 한약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품으로서 또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제처리가 등한시되고 있는 점도 또한 무시못할 장애요소일 것이다.

가령 한약방의 약제처장보관상태를 보면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으나 과연 약품인지 그렇지 않으면 참고한 구석에 내버려진 雜草덤이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소홀이 다루어져 있는 상태를 보는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한약의 발전책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지극히 가까운 곳에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요컨대 한방의 학은 국민보건 담당자로서의 重責을 지니고 있는 만큼 현대의학 및 현대약학과 提携하여 보다 더 객관성 있고 체계적인 보전활동을 展開하여야 할 것이다.

유구한 傳承醫學의 독자적인 특징을 응호하면서도 자연과학기초 위에 의약품산업의 一環으로서 한약을 발전시키는 것이 약학자나 의학자에 대한 요청이다.

이런 견지에서 의약품산업으로서의 발전방안을 몇 가지 開陳코자 한다.

漢藥資源의 開發

漢藥基源資源의 國內分布調查 : 產地, 品種, 數量 등을 조사하여 한약자원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국내생약학자들이 약용식물채집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대개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결과에만 끌이는 감이 있고 큰 成果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음으로 조금만 장기적 안목에서 조직화하여 시행한다면 그리 難事는 아닐 것이다. 우리 祖上은 수백년전에 이미 이런 사업을 이룩하였으니 그의 後孫인 우리들이 못 할리 없을 것이다.

漢方基源藥草의 栽培獎勵 및 品種改良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高麗朝부터 국산한약의 재배를 장려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史實로서 인정할 수 있을 진데 우리도 이를 계승발전시킬 의무가 있음을 切感한다. 특히 수입한약의 국내 栽培開發, 수출가능 한약의增產 등을 도모하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이루워져야 할 課題이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現行制度上에도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겠는데 그것은 한약의 재배를 農林部의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고 의약품으로서의 한약관리 등은 保健社會部의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어 사무집행상에 있어 원활을 기할 수 없을 것도 예상됨으로 栽培獎勵에 있어서 有終의 美를 거두기 위하여는 行政系統을 一元화할 필요도 느낀다.

漢藥의 現代化

成分 및 藥効의 究明 : 전술한 바와 같이 한약의 발전을 阻害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藥効測定의 計量化가 지극히 곤란하여 과학적 객관성이 분명치 못한데 있느니 만큼 성분을 분석하고 각 성분에 대하여 현대 약리학적 견지에서 약효를 관찰하고 한방의 학적인 효능을 뒤받침해야 될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한의학적이 견지에서 본다면 장구한 시일에서 얻은 경험의 蕩積으로 이루어진 것이 한약이기 때문에 傳承되어 온 한방의 학적인 효능을 그대로 是認可하려는思考도 일부에서는 이러나고 있으나 아무래도 현대과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는 그 효능을 計量化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으며 우선 성분연구와 약리작용 검토로부터 이를 試圖하는 것이 한약을 과학화하는 첫 순서가 될 것이다.

더군다나 常用되고 있는 한약중에는 아직도 그 성분이 未詳한 것이 많으므로 한약현대화를 위하여는 성분연구가 필수과제임을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規格制定 : 한약취급이 너무나 무질서하고 소홀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漢藥典을 따로 制定하여 모든 한약을 規格화함으로써 品質을 향상시켜야 하겠다.

양약에 대하여는 약전을 제정하여 엄격히 규격화하고 이에 어긋나는 취급에 대하여는 가차없이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데 반하여 한약에 대하여는 너무나 관대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은 하루 속히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毒劇性이 강한 한약의 誤用 또는 濫用으로 인한 피해 또한 적지 않을 것이며 또는 貯藏保管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성분의 變質을 招來하여 몬태의 효능을 발휘치 못하게 될 경우도 우려됨으로 그의 規格화는 여의도로 보아 시급히 요청되는 바이다.

劑型의 改良 : 原形을 脱皮하고 挫, 切, 粉, 엑스 등의 형태로 加工하여 의약품으로서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것도 現代화의 한 방법이라 하겠다. 일본의 어떤 한방제약회사에서 발매되는 「加工附子末」은 특수방법에 의하여 毒性을 제거한 부자분말로서 총 alkaloid 함량을 규정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든것으로서 좋은 一例라고 하겠다.

湯液, 合劑의 劑型化 : 服用을 簡便하고 쉽게 하기 爲하여 종래의 湯液 또는 合劑를 粉劑, 엑스劑 또는 錠劑 등으로 劑型化한다.

예를 들면 黃連解毒湯, 葛根湯, 香蘇散, 四物湯, 十全大神湯 등 한방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合劑를 엑스散, 엑스錠 등으로 제제화하여 복용에 간편하도록 한다.

國內製藥資源으로서의 漢藥의 活用

安價하고 효능이 확실한 大衆用家庭藥은 한약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우리나라 實情으로 보아서는 효과적

이라 하겠다. 예를 들면 海人草로 驅蟲劑를 개발한다던지 龍膽으로 消化劑를 만든다던지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며 국산한약을 國內醫藥資源으로서 활용하는 점에서 意義가 크다.

예 고

인삼 제제에 관한 심포지움

문제 제기

이용주 교수

1. 유우럽의 인삼 연구

K.H. 뤼케르트 사장

2. 인삼의 약효

조향영 교수

3. 인삼의 화학성분

한병훈 교수

총 합

홍문화 교수

시일 : 1972. 11. 18 (토) 오후 3~5시

장소 : 국립의료원 대강당

주최 : 한국생약학회 및 파르마톤 회사